

광주 자치구, 시립도서관 유치 경쟁 치열

시,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2023년까지 확충 추진

광산구 유치위 발대식... 서구·북구도 유치전 나서

광주시에 추진 중인 OECD 수준의 공공도서관 확보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각 자치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립 타당성과 후보지, 적정규모 등을 위한 용역도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OECD 수준인 인구 4만5000명당 도서관 1곳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시립도서관 확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지역에는 모두 2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46만명의 인구규모로 볼 때 7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가 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 건립에 나선 것은 1997년 산수도서관 개관 이후 20년만이다. 1981년 무등도서관(북구)과 1989년 사직도서관(남구)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이 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 장소는 어디인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도서관 개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시의 고민이 그

만큼 깊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목표로 도서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시의 건립 추진 계획과는 별도로 자치구간 유치전도 과열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발대식을 하는 등 가장 먼저 대처하고 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서구와 북구 등도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번 용역과는 무관하게 상무소각장 폐쇄부지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포함된 점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광주시는 15년간 가동 뒤 지난해 말 폐

쇄한 상무소각장 활용방안의 하나로 복합 문화타운, 시립도서관 건립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경우 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서관을 2곳이나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어서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명칭은 시립도서관이지만 사실상 공공도서관을 의미한다"며 "자치구 간 경쟁이 있다보니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신축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최종보고회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광주서 강원도립예술단 무료공연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 '겨울 판타지'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북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7시30분부터 90분간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원도립예술단 무료공연을 개최한다.

'겨울 판타지'라는 명칭의 이번 공연에는 강원도립예술단 국악관현악과 한국전통무용 전공 70명이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을 하면 관람이 가능하다.(문의 033-249-5325, http://art.gwd.g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교육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남구 대촌동사무소에서 생산 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홍보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잔류농약 성분 정보 제공 ▲농약 사용 시 당부사항 등을 중점 전달했다.

또 2018년12월 3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도 소개했다. PLS 제도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을 일률적 기준(0.01mg/kg)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직자 사랑의 헌혈 광주시 공직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행사'에 참여해 헌혈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 공직자와 시청 주변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 시민이 참여하며, 9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렸다. <광주시 제공>

팝콘으로 화산폭발 실험, 용수철로 지진계 관찰

무등산 중심사 탐방안내센터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기

팝콘을 이용해 화산폭발을 실험하고, 용수철로 지진계 관찰을 해보는 등 생생한 체험형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무등산 중심사지구 지질공원 탐방안내센터에서 초등학생 3~6학년년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교육프로그램 지오스쿨(Geo-School)에 참가 문의가 쇄하고 있다.

지오스쿨은 어렵게 느껴지는 지질학을 무등산과 그 주변 지질유산을 통해 이론과 실험으로 배우는 지질교육이다.

올해는 1차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7기 과정에 관내 초등학생 16명이 참여했고, 교육은 과학교사 출신의 지질공원해설사가 강의를 맡고, 보조교사를

포함해 7명의 지질공원해설사가 실험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의 탄생, 각 지질 시대에는 어떤 생물이 살았나, 암석이란 무엇인가, 지진과 화산 등을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팝콘을 이용한 화산폭발 실험, 용수철을 이용한 지진계 관찰, 석고 모형으로 조개화석 만들기, 물감으로 공룡 보행렬 찍기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참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8기 교육 과정이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지질공원팀(062-613-7852)에서 전화로 접수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고용률 18년만에 60% 넘을까

6개월 연속 상승 7월 59.7% ... 민선 6기 일자리정책 성과

광주시 고용률이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60%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7월중 광주 고용률이 6개월 연속 상승한 59.7%를 보였다. 고용률 산출기준이 구축 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된 지난 1999년 6월 이후 18년 동안 시가 한번도 도달해 보

지 못한 고용률 60%대 진입을 목전에 둔 것이다.

이 기간 최고의 고용률은 지난 2014년 5월로 7월과 같은 59.7%를 기록했으나 다음달에 59.4%로 후퇴하면서 60%대 진입에 실패했다. 하지만 시는 민선6기 일자리 정책이 점차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는 6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선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

자리 창출에 두고 ▲3대 벨리 조성 ▲광주형 일자리 도입 ▲기업유치 ▲명품강소기업 육성 ▲청년창업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뿐 아니라 기업과의 무한신뢰를 통해 대우위니아 본사와 공장 이전, 엠코코리아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장현 광주시장의 진정성을 담은 호소에 기업들이 응답하기 시

작하면서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4일 본사와 공장을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이전한 대우위니아의 경우 윤 시장이 직접 경영진은 물론 노조와도 대화와 설득에 나서 광주의 인센티브와 지리적 장점 등을 전달해 성사시켰다.

엠코코리아도 윤 시장이 미국의 회장에 게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광주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공을 들여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는 또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내버스 운전자 건강관리 나섰다

TF구성 근무여건 등 논의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전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10일 "지난 7월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26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근골격계, 스트레스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체력측정 결과 광주 시내버스 운전자의 체중, 혈압, 체지방률,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이 국민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2014년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이철갑)와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26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근골격계, 스트레스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체력측정 결과 광주 시내버스 운전자의 체중, 혈압, 체지방률,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이 국민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